

女性 절반 「性희롱」 경험

전국 고교생 60% 음주 흡연 경험

가정주부 여대생 직장여성 등 성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음력전월(음력 12월)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나 신고율은 2%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대부분의 여성들이 강간의 범죄행위와 신고행위 이 지극히 낮다. 월전 두거위자 아하며 친고죄로 돼있는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.

이같은 사실은 한양대沈英姬교수(사회학)가 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「민생치안의 실태와 대책」이란 세미나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.

설문조사대상은 전국 고교생 60% 음주 흡연 경험

전국 고교생 60% 음주 흡연 경험

전국 고교생 60% 음주 흡연 경험

생 8.9% 재수생 18.5%가 사춘기출혈경험이 있고 고교생 72.2%와 재수생 75.8%가 돈내기 도박을 해보았으며 스코교생 74.4% 재수생 69.2%가 음력사죄를 소지해본 것으로 나타났다.

이 조사에서는 이밖에 스코교생의 13% 재수생의 29%가 이성과의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으며 스코교생 18.5% 재수생 36.6%가 이성과의 혼숙경험이 있으며 스코교생 67.4% 재수생 79.6%가 음란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 덕성여대 金俊鎬교수(사회학)는 서울 釜山 大邱 光州 大田 仁川 등 6대도시 남자고교생 2천3백65명과 재수생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비행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고교생의 58.7% 재수생의 85.8%가 흡연경험이 있으며 고교생의 57.3% 재수생의 95.6%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.

이 조사에서는 또 스코교